

6,000여 주주를 가진

협회라는 이름의 주식회사?

장 소 본협회 회의실  
 시 간 1969년 2월 3일 오후 2시  
 사 회 본협회 출판부장

참 석 자

윤 수 북	본 협 회	총 무
민 인 자	본 협 회	총 무 부 장
최 보 배	본 협 회	사 업 부 장
조 인 자	본 협 회	섭 의 공 보 부 장
김 여 진	본 협 회	교 육 부 장
이 귀 숙	본 협 회	서 무 부
김 병 숙	본 협 회	〃
김 미 정	본 협 회	출 판 부
한 정 유	본 협 회	총 무 부
원 용 기	본 협 회	출 판 부 장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창설된지도 46년이 되었으며 그 회원의 수도 처음 수십명에서 해마다 늘어 6,000여명에 달했으며, 그 사업도 날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여성직업단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여성단체로 손꼽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협회 살림을 맡아 하는 협회 직원의 수도 1명에서 10명으로 늘어 각분야별로 사업계획과 사업수행에 열쓰고 있다.

이에 협회와 회원간의 거리는 차차 단축되고 협회직원과 회원간의 의사소통이 빈번해졌으므로, 우리 서로 흥미를 털어 놓고 회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사회:**—모처럼 우리 식구끼리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회원들이 늘 간호협회에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애, 그 궁금증도 풀어어드릴 결 우리의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나누어 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오붓한 자리에서 흥금을 털어 놓고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여러 회원들에게 새해인사부터 해볼까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윤수복:**— 6,000여 회원 여러분이 모두 새해엔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모두 건강하시기를…….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엔 우리 협회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최보배:**—간호협회는 여러 회원들의 협회이니 올해에는 꼭 회관이 전립되도록 밀어달라는 부탁으로 새해인사를 대신하죠.

**민인자:**—새해엔 여러 회원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조인자:**—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활해이니 모두 활처럼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하시어 보람차기를 바랍니다.

**김여진:**—올해에는 좀더 전설적인 태도로 자기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라며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이귀숙:**—전 새해 인사라기 보다는 어떤 과제를 주고 싶군요. 되도록이면 회원들이 자주 협회를 찾아주시어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회원들이 자주 오셔야 협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무슨 일로 도울까도 생각하게 되구요.

**김명숙:**—새해엔 여러 회원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저처럼 말리지 말고 살찌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옥:**—새해엔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미정:**—이젠 신입사원 따지도 떨어지고 회원들이 오면 한 집안 식구같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독설이 내던 길이 위험하니 특히 조심하시기를…, 물론 70년대는 my car시대가 된다니깐 그럭까지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아울러 새해의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새해 인사는 모두 드렸으니 약하고 올해엔 우리 간호자를 첫장부터 끝까지 읽어 주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번번히 못하게 읽어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간호자에 관



<윤수복>



<민인자>



<최보배>



<조인자>



<김여진>

한 평이나 제안,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도 환영합니다.

— 협회란? —

협회하면 회원의 회비로 운영해 나가는 단체이고 보니 여타가지로 말들이 많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도내체 “협회”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협회란 회원이 협력하여 설립, 유지하는 회”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러나 여력분들이 협회일을 보아 오면서 느낀 “협회”에 대한 정의는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들고 왔어요.

윤수복: —글쎄 “개인 으로서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일을 여타 개인이 힘을 합해 이끌어 나가는 단체”라고나 할까요?

사회: —민선생님은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가장 오래 계셨으니깐 더 절실한 얘기가 나올 것 같군요.

민인자: —뭐 윤선생 님이나 같은 얘기죠.

이귀숙: —그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많은 해수에 비해 해는 일이 무엇인가 몰이켜 보면 아찔해 지나가요.

간단히 말해서 “팬 시

집살이”죠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어렵고 하니깐요. 어떤 회원은 “협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나”고 따지고 드는데 이런 뉘 참기가 막히죠. 협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알아 보기도 전에 협회 사업에는 방관하다가도 아쉬우면 찾아와서 따지거든요.

사회: —제가 서울시지부 옆방에 있을 때의 얘긴데요. 가끔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회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 회비는 무엇에 쓸 것이냐” 하고 묻고 따지는 일을 보았어요. 그때 전 이 간호협회는 “6,000여명의 주주를 가진 협회라는 이름의 주식회사”고나 하고 정의를 내려 본 일이 있어요. 그만큼 6,000명의 비위를 맞추기에 신경을 써야 하니깐요.

아마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겐 협회와 회원 간의 관계를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는게 가장 쉬운 일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캐비디 대통령의 취임시 연설의 한토막인 “국민이 국가에 대해 무엇을 해주겠느냐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들으라”와 같이, “회원은 협회가 무엇을 해주겠느냐 묻기 전에 회원이 협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좋은가를 묻으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최보배: —그래요. 나도 가끔 협회에선 무얼 하느냐는 소리를 듣지만, 무엇을 하는가 알고 싶거든 직접 찾아와서 보든지 아니면 서신이나 전화로라고 문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협회 정관이나 리프렛, 그리고 간호지라도 읽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윤수복: —그럼은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또 잘 협조들을 해 주니까요.

이귀숙: —하지만 알려고 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윤수복: —내가 협회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은 회원과 직접 대화나 서신으로 연락을 하면 끝 이해가 와서 협조가 잘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치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 알아보고

많이 이용해 주기를—

사회: —그럼 이번에는 협회일을 맡아 보면서

느낀 애로점을 즉 털어 놓으시겠어요?

민인자: —특히 애로를 느끼는 점이라면 각지부에 문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을 때, 회신이 신속치 못해 일의 처리가 늦어지는 거죠. 공문 뿐 아니라 회비나 책값등 모든 것이 제때에 올려져야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 —그건 각지부에 전임 직원이 없는 탓이 아니겠어요?

민인자: —왜요? 상무가 따로 있는 지부도 많은데요. 물론 없는 지부도 있기는 하지만……

이귀숙: —며칠까지 회신을 해 달라고 못을 박아 공문을 띄워도 함흥차사인 걸 보면 역시 소홀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윤수복: —그리고 우리도 또 지부에서 문의가 왔을 때, 곧 회신을 해 주고, 특히 영수증 같은 것은 곧 해서 보내도록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회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친절을 베푸는 것이 회원 포섭에는 첫째니까요.

김여진: —이야기가 너무 사무적인 뜻으로만 흐르는 것 같군요. 회원 자신의 발전을 위하고 사회적 위치의 개선이라든지, 회원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맡아 한다는 협회에 대한 철학부터 물어 넣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협회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런 철학 즉 기구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협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사회: —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더 쉽게 얻어지는게 아닐까요. 그런 철학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가 문제니까요.

윤수복: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협회를 알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줘야겠어요. 이것은 아마 간호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강의를 통해 이해시키는 길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협회라는 곳은 실제로 실무자로서 일하기 전에는 그 애로라는 걸 절실히 느껴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협회 이사직을 오래 맡고 있었건 분이라도…….

사회: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정 회비를 낸것 만큼의 혜택을 입고 싶으면 협

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강습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의욕을 간다든지, 가능한 한 협회를 많이 이용해야죠. 협회도 회원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발전해 나갈 것이며, 회원도 협회를 잘 이용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것이고, 회비만 내고 이용을 못하면 그 만큼 손해 보는 것이니까요.

최브배: —그랬요. 돈만 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주 이용을 해야죠.

이귀숙: —그리고 가끔 회원들이 우리에게 불친절하다는 말을 하는데, 관정에 가 보면 우리는 참 친절한 편이에요. 우리도 사람이니 만큼 놀다움이 기쁠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좀 무뎠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좀 애교로 받아 주셔야죠.

또 회원 측에서도 부드럽게 나오면 이 쪽에서 친절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레이드도든 서류를 가능한 그 자리에서 곧 처리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을 알아 줬으면 고맙겠어요.

사회: —그럼 회원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설의부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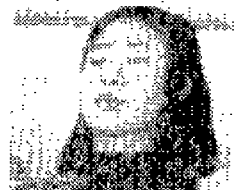
조인자: —어떤 회원은 구비 서류를 다 갖추



<이귀숙>



<김명숙>



<한정목>



<김미정>



<원용기>

지도 않고, 협회에서만 도장 찍어 주면 될 텐데…… 하고 불평을 하지만,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얘기죠. 우리가 한회원의 편이만 보아 주다가 여러 회원들에게 지장을 주는 실수를 저지룰 수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윤수복 : —우리는 모든 회원에게 공평해야 하며 또 대외적으로는 철저해야 하니까요.

이귀숙 : —어떤 회원은 보사부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 없으니 여기서만 싸인해 달라고 쓸르니 참 딱하지요.

### —가장 기쁜 일은 회의때 전원 참석—

사회 : —그럴 골치 아픈 얘기는 그만해 치우고 그동안 일하면서 느낀 보람 있었던 얘기라도 들려 주실까요?

조인자 : —서독에 가 있는 우리 회원들이 정을 모아 “빠죽시제”를 보내 왔을때 정말 눈물이 나오도록 반갑더군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 협회를 잊지 않고 있으니…….

이귀숙 : —물론 선물도 좋겠지만 협회 주선으로 외국에 가서 잘 있다고 감사하는 서신을 보내올 때도 참 기쁘죠. 잘 때만 글해서 서두르고 떠난 후는 소식이 없어 정말 한국을 떠났는지, 아직도 못떠났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데가 허다한데요…….

사회 : —저는 가끔 “간호지”를 보고 평을 해온다든지, 원고를 보내올 때, 그리고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회원들이 간호지가 제일 반갑더라는 소식을 전해올 때 깨알만한 활자와 씨름을 하던 고달픔이 싹 가시죠.

또 원고 청탁을 했을 때 제 날자에 원고를 보내오면 기쁘구요. 원고 청탁을 해서 원고가 들어오는 예는 약 50%밖에 안되며, 특히 지방인 경우에는 지난번만 하더라도 12지부에 고루 청탁을 했는데 한지부 밖에 안써왔으니 말이예요.

윤수복 : —나는 보람을 느끼는 일이 많지요. 우리가 추천한 회원이 표창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쁘구, 특히 이번 ICN총회에 우리 회원이 많이 참석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참으로 기뻐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한 증거이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기쁜 것은 회의 소집때

전원이 참석했을 때죠.

조인자 : —그럼 우리 총무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빨리 전화 하나 더 해야겠어요. 회의때마다 전화에 불이 나도록 다이알을 들려야 겨우 성원이 되는 형편이니까요.

최보배 : —정말이지 전화가 두대는 있어야지 늘 통화 중이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윤수복 : —특히 이 지면을 통해 기쁘고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야겠군요. 우리 협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랫동안 투쟁한 결과 간호직 수당이 책정되었음을 감사하는 뜻에서 지난 2월 12일 충북지부에서 5,000원을 보내왔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간호직 수당에서 500원씩을 자진해 모아 5,000원을 본협회에 보내면서 협회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서신을 보내왔읍니다.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운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아마 이런 편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간호협회를 떠나지 못하나봐요. 여기서 얻은 용기에 힘을 더해 일해 보겠다는 의욕이 새로워집니다. (청주도립병원의 석연자 1,500원, 홍수자, 김선희, 정영자, 이문희, 홍석길 각500원씩 충주도립병원의 표혜은, 조남원 500원씩)

### —자질 향상 의 기회와 대우개선—

사회 :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으로서의 바라고 있는 점을 털어 놓을 때가 되었나 보죠? 제가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회의에 있어 제시간에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일 시간이 늦는다거나 못참석할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해 줘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회의 소집을 위해 시간을 정할 때 한번씩 전화를 들리고, 다음에 공문을 내고, 또 그날에 가서 시간전에 다시 전화를 들리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허비가 되겠어요.

최보배 :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의소집 공문을 보낼 때 미리 참석 여부를 회신을 받도록 했

으면 좋겠어요.

사회:—그리고 앞으로 상호협회가 제대로 일을 해 나가려면 각 분야별로 제일인자를 모셔다 놓고 그만한 대우를 해 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실무자를 키워 가며 일을 하도록 맡겨 주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할 거예요.

윤수복:—현재로서는 각 상임위원이나 이사들께서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의욕을 돋구어 주어서 능력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 주고 있는 셈이죠…….

김여진:—총무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는 것 말입니다. 출근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퇴근 시간도 제때에 지켜야 문화사업도 하지 않겠어요……(일동 박수)

윤수복:—아니 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았지 내가 못나가게 한 적은 없어요.

이귀숙:—선생님 나가래도 못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윤수복:—아니 난 내 일이 밀려 못나가져 날 따라 오래 있으라주는 안 그때요.

민인자:—하지만 웃어른이 안나가시는데 그렇게 살짝 빠져 나갈 수 있어요?

최보배:—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꼭포한 일만 끝내면 제시간에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자기 일이 밀려서 못나가는 건 할 수 없지요.

김여진:—그리고 휴가도 줘니까?

민인자:—줍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규정대로 다 주고 있어요.

사회:—휴가가 있으면 별해요. 각자 맡은 일이 다른데 대신 맡겨 놓을 때가 있어야 휴가를 하죠. 마음 먹고 휴가를 한다 치더라도 협회 일 때문에 마음이 개운치 않은 형편인데…….

민인자:—그러나 이제 식구도 이만큼 늘었으니까 앞으로는 모두 휴가를 해도 될 거예요. 꼬박꼬박 나가면 과히 불편이 없을 거예요.

사회:—이전 제가 강습회마다 느끼는 일이에요. 임상 간호원은 임상간호원대로 학교지도자는 학교 지도자 대로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회가 연 2회는 빼놓아지는데, 우리 직원들은 도무지 이런 기회가 없어요. 각 분야별로 자기 부에서 필요할 새로운 지식을 얻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출판부는 출판부로서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설의부는 설의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얻어야지 일에 진전이 있을 거예요.

그저 처음에 협회에 들어올 때 지나고 있던 그 지식만 가지고는 탈전될 수가 없지 않아요? 이런 점에선 병원이나 학교에 있는 회원들이 우리 보다는 행복한 편이예요.

윤수복:—네, 그러지 않아도 내년엔 그걸 계획에 넣고 있어요. 설의부는 YWCA같은 데에 가서 새로운 것을 알아 온다든지 출판부에서는 편집에 대한 것을 익혀 온다든지……하는.

사회:—그렇게 해서 협회 직원을 걸르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무리 임상이나 학교에서 유능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협회에 오면 또 몇달을 지나야 협회에 익숙해지니까 말이에요.

최보배:—지난 강습회 때 느낀 일이지 단 협회직원들에게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강의가 끝나면 그 재료를 맡겨 타자해서 다음날 나누어 준다는 것등 낮에는 낮에 덥고 일하고 또 밤까지 하니 말예요. 여차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우도 해 줘야 하리라 믿어요.

또 차나르기 음식 나르기를 간소화 해야겠고 직원들의 대우개선도 중요하겠구요.

사회:—가만히 보니까 강습회 마다 선결문제가 대우개선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협회 직원에 대한 대우 개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더군요. 이런데 외톨박이 같은 외로움이 느껴져요.

민인자:—그리고 회의에 참석해서는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고 실무진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사회:—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도 자질향상의 기회와 대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처럼의 기회였지만 기탄 없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또 회원들의 협조를 바랄 것은 기대해 보기로 합시다.